

미카와 면과 다케시마 공예관

가마고리와 면의 연관성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면직물과 의류 산업은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다케시마 공예관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전통 섬유 제조 기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연대기에 따르면 이 목화는 8세기 인도 아대륙에서 온 여행객을 태운 배가 가마고리의 서쪽, 오늘날의 니시오 시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일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행객이 가져온 목화씨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목화 재배를 시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목화 재배는 16세기까지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작한 이후 미카와 지역(가마고리를 포함한 현재의 아이치현 동부)이 주요 생산지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면업은 17세기부터 일반 사람들이 널리 입을 수 있을 만큼 면 의류가 저렴해지면서 번창했습니다. 미카와 면과 지역 섬유 제조업체가 사용한 독특한 줄무늬 패턴은 메이지 시대(1868-1912) 동안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마고리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몇 년간 섬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렀고, 도시 안팎의 공장과 작업장은 저렴한 직물 소비를 위한 전국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섬유와 옷을 생산했습니다.

섬유 산업은 더 이상 미카와에서 중요한 경제 요인이 아니지만, 면 생산의 유산과 전통적인 과정은 여전히 지역 자부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산은 강사들이 미카와 기술을 이용하여 면 컵 받침을 만드는 단계별 수업을 제공하는 다케시마 공예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목화씨에서 무명 섬유를 분리하는 방법, 면을 실로 만드는 방법, 전통적인 베틀에서 컵 받침을 짜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케시마 공예관은 다케시마 호텔과 다케시마 섬으로 가는 다리 근처의 순제이엔 정원에 위치해 있습니다.